

1권 요한복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성경말씀: 요3:18-36

지난 두 주, 니고데모 이야기, 지난 주 요3:16, 가장 위대한 메시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창조자 주인임을 믿으면 된다. 니고데모 이야기 종결: 주님이 오신 이유(17),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가 예비되어 있다(18). 빛과 어둠 이야기(요한복음의 상징 1:4-13), 그분께 오지 않는 이유: 어둠을 더 사랑한다(19). 계속해서 악 가운데 머무르려 한다. 자기의 선한 행위로 무언가 해 보려고 한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악한 행위가 더 드러남, 지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문제이다. 핵심: 교만, 나는 괜찮다. 대개 선한 사람들,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 니고데모는 혼돈 가운데 있었으나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온다(요19:38-42).

십자가에 달려 위로 올려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됨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일: 자기 위치 파악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22-30)

침례자 요한, 결국 해룻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힘, 그전까지는 주님의 사역과 겹침

요한이 한 일: 결코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킴(1:29)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자 두 사람의 제자들끼리 경쟁의식이 생겨서 다툼

22절 예수님 유대 땅에서 침례, 23절: 침례자 요한도

25절: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킴, 내용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막7:1-23), 구약 성경,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의식적 차원에서 정결해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더했다.

요한의 제자들 불만(26)

당시 풍습: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 사람들 생각, 요한이 더 크다. 침례를 받았으면 예의상 멀리 떨어져서 가르치며 지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의상 요한의 사역지인 유대에서 침례를 주면 안 된다.

지도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모세와 여호수아(민11:26-30)

침례자 요한, 예수님(눅9:49-50), 바울(빌1:15-18)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 반대자가 아니라 잘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침례자 요한의 해결 방법

1. 사역과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27). 그러므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바울의 예(고전3:1-9), 우리의 사역, 은사, 축복 모두 주님에게서 나온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필요

2. 아름다운 비유: 예수님은 신랑,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29)

즉 자기는 구약 시대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그 신부를 얻지도 못하며 그저 예수님의 들러리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면 들러리의 역할 끝,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
들러리가 신랑 행세를 하려 하면 월권,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 배 속의 요한이 기뻐서 뛰놀(눅1:44)

자기 존재 인식: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1:23)

예수님은 빛,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요1:6-8)

3.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과찬을 듣는 것, 목사 소개, 과장된 말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그리하고 있다.

4. 침례자 요한의 신랑 신부 언급은 대단히 중요한 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런데 간음하여 결국 잠시 동안 버려진 상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이다(고후

11:1-3). 신랑이 와서 정혼을 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누구를 데리러 오는가? 신부, 그 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5. 침례자 요한의 위대한 말(30)

위대한 사역자의 고백: 나는 죽고 주님만 흥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인이 되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설립자 호튼 박사 이야기

<꿈을 이룬 사람들> 혹은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들>, 2016년 7월 29일 9시 37분 5초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한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제게 <Builders of the dream>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 <꿈을 이룬 사람들> 혹은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학교, 대학,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발전시킨 호튼 박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Builders of the dream>을 읽었습니다.

1953년부터 2012년까지 60년 동안 알린(1928년생)과 베카(1929년 생) 호튼(Arlin and Beka Horton) 부부는 무(無)에서 지금의 크리스천 학교/대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대학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종합 대학이며 이 학교가 펴내는 베카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홈스쿨링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이 모든 성취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랑하고 확신을 가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들의 출생을 살펴보니 이들은 미미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히 베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가장 확고하게 근본주의를 지지하던 밥존스 대학에 들어가 성경에 대한 확신, 소명을 갖고 대학 졸업 후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시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해서 현시대 최고의 크리스천 스쿨과 교재를 만들어 놓고는 60년 교육 사업을 마치고 슈메이커 박사(현재 49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뒤 은퇴하고 오레곤 주로 이사가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내 아버지가 태어난 우울한 시대에 크리스천 교육으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두려움 역시 부분적으로 이 학교에서 수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랜드 박사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아주 귀한 글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내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번역해서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공유한 글입니다.

알린과 베카의 청지기직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그들의 당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통적인 크리스천 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willingn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desire for God to enlarge the vision) 이 모든 성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섬김의 흥분”(thrill of service)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 수고와 도전들 그리고 실망들 - 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뚫고 나갔습니다.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우리말로 우리말답게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책으로 그리고 좋은 목소리의 성우를 써서 음성으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도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날이 오면 나도 은퇴해서 보스턴 테리어 같이 얼굴이 멍뚫한 개를 키우며 손자/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께 갈 것입니다.

1.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2. 성경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패스터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한 마디로 증인이다. 요한복음에 매우 많이 나온다(약 50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인, 증언한다.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1.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31). 침례자 요한, 모세, 엘리야 다 땅에서 난 자들

의미: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본 자만 말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

2. 그분의 증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32-33).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3. 아버지가 권위를 부여하신다(34-35):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 이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므로 예수님은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35). 모든 것을 그에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공동 상속자

4. 3년 반 사역, 예루살렘의 거부, 주님의 눈물(마23:37-39), 결국 40년 뒤 AD 70년에 성전 파괴 온 세상으로 유랑생활

5. 마지막 결론: 아들을 믿어야 한다(36),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18).

예수님의 증언에 관한 한 회색 지대가 없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wrath),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서 사는 것(마25:41).

요한복음 3장의 결론

사도 요한의 강조점: 새로운 출생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

1. 새로운 출생(하늘에서 나는 것, 성령님으로 나는 것)과 함께 시작되는 살아 있는 관계

2.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우리는 쇠하고 그분은 흥한다.

3.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증언, 우리는 그 증언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적용한다. 배우는 관계

4.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감당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들려 올라가면 멸시와 조롱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

5.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처럼 외쳐야 한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